2024 예술가.ZIP 이동형 전시
「ART TRUCK(아트트럭) 참여 작가」 선정 결과

2024 문화도시영등포 사업의 일환인 예술가.ZIP 이동형 전시 <ART TRUCK(아트트럭)>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모는 서류 심사를 통해 6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선정 결과** ※ 연번은 심사평점과 무관합니다.

연번	지원자명	전화번호 뒷자리
1	손○우	9277
2	안○영	2605
3	이○준	6363
4	이○정	1928
5	유○주	7689
6	장○훈	9394

□ **심사개요**

○ 심사일정 : 2024년 09월 11일 수요일

○ 심사방법 : 비대면 서류심사

○ 심사절차

예술가.ZIP 참여 작가 심사
2024. 09. 11.(수)
비대면 서류심사

▶

최종선정
2024. 09. 13.(금)
영등포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심사기준

구분	내용	점수
고유성	작품 비쥬얼과 작품의 의미 및 표현력의 예술성	25점
적합성	예술가.ZIP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전시 및 작품 대여 진행에 적합성 여부	25점
타당성	영등포 활동 주체로서의 활동 이력 및 지역 이해도 검토	25점
사회적효과	예술가.ZIP 전시 및 작품 대여를 통한 영등포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	25점
우대사항	거주 및 작업실 소재가 영등포일 경우(영등포 활동 주체)	+5점

○ 심사위원

심사위원	소속 / 약력	비고
심사위원1	비평가 - 2021.7 비평웹진 퐁 운영 - 2020. 3.『미술 비평 조감도』공저 - 2022. 7.『코로스코프』기획 및 출판	
심사위원2	비평가 - 2020 - 2022 평택 mM ArtCenter 자문위원 - 2016 -2017 예술협동조합 아트플러그 이사장 - 2009-2016 옵시스 아트 대표	
심사위원3	독립큐레이터 - 2018-2021 (재)수림문화 자문 및 심사위원 - 2017-2022 (재)재능문화 JCC 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2011-2015 (사)캔파운데이션 기획실장	

□ 심사총평

관람객이 오길 기다리고, 그들에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의 관람 경험을 허용하는 갤러리와 달리, 트럭에 작품들을 태워 이동하며 관객들에게 다가간다는 동적인 개념의 관람 형식이 갖는 매력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뒤샹의 <여행가방 속의 상자>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 활달함 덕에 도깨비상점, 프릭쇼, 인형극 등 작은 축제의 운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작품이 놓여있어야 하기에, 작품의 질료는 물론이고, 제출된 작품이 갤러리에 있어야 본 내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작품을 선정했고, 저 자신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미감에 의존하기보단, 아트트럭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작품들이 견디기 좋은지, 이런 장소에서 보다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작품인지의 여부에 방점을 두고 작품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심사를 거듭하면서 느끼는 것은, 합불의 여부가 단순히 미적 표현의 우열때문이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 공모에 열의를 갖고 지원해주신 지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결코 작가와 작품의 부족함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지 않으시길 바라며, 끊임없이 창작을 이어나가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트럭'이라는 명칭은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던 윙카를 생각나게 한다. 궁금하고 기대감을 모으는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로서 작가들의 작품이 시민에게 선보인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출품작가들도 그렇지만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 특히 입체작품이 움직이고 찾아가는 전시로서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래라는 지역이 작가 작업실과 예술공장으로 처음 이 지역에 작가들이 모일 때에 비해 큰 변화를 겪은 것을 목격하였든, 이 사업이 지역에서 더 좋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사업이 작가들에게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되고,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작품의 예술성과 작가의 개념이 돋보이는 전시가 깜짝 방문처럼 시민들과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도서관처럼 작품을 트럭에 설치하여 관객을 찾아가는 이동 전시장 같은 프로젝트가 "아트 트럭"이라면 전혀 새롭지도, 참신하지도 않은 구태의연한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트럭이라는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된 공간에 그리고 심지어 이동까지 가능한 공간에 적절하게 큐레이팅이 된 전시가 열린다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떨릴 기획이다. 트럭 자체가 전시장인 동시에 인스톨레이션 작품처럼 기획되고 제작되어 이 아트 트럭이라는 작품이 적절한 장소에 주정차되어 일상의 공간에서 전시가 된다면 미술을 접하지 않았던 주민은 물론 미술계 종사자에게도 매우 관심이 갈 전시다. 심지어 큐레이터나 아티스트가 트럭에 탑승하여 주민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게 되면 더욱 미술을 새롭게 체험하고 체험시켜 프로젝트의 효용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이런 기획을 가능하게 해준 해당기관의 안목에 경의를 표하며 실현될 이 프로젝트를 상상하면서 이 전시를 실제로 감상할 순간을 기대한다.

□ 향후 일정

○ 아트트럭 선정 작가 안내 및 계약 전시 예정 (선정자 개별 안내)

□ 문의

- art.zip.truck@gmail.com / 02-6956-3501